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5차 세션, 서론, 5부, 교리 와 그리스도론 의 역사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서론, 파트 5, 교리와 그리스도론의 역사입니다.

속죄 교리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방의 초기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사탄에게 대속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방에서는 신격화가 우세했지만 동방과 서방 모두 그보다 더 복잡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의 안셀름과 아벨라르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종교 개혁의 루터와 칼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에 대한 반응을 준비했고, 첫 번째는 파우스트 소시누스(1539-1604)입니다. 저는 앤서니 시슬턴의 체계 신학과 H. 더못 맥도날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에 대한 책, 그의 강력한 역사적 섹션에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개혁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법의학적 또는 법적, 처벌적, 즉 형벌적 속죄 관점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항의는 파우스트 소시누스의 책인 *De Jesu Christo Salvatore*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코베투스에게 대답하기 위해 쓰여졌고, 칼빈과 루터가 믿었던 것을 부인한 것일 뿐입니다. 소시누스의 모든 노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의 죽음이 속죄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그렇습니다. 소시니안과

소시니주의는 삼촌과 조카인 라엘리우스와 파우스트 소시누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은 라틴어로 표기되었고, 이탈리아 이름은 Laelio 와 Fausto Socini 였지만 ,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Faustus Socinus로 말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견해는 Pelagian이었습니다. 즉, 아담은 인류에게 나쁜 본보기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Arian의 견해였으므로, 그가 속죄에 대한 결함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소시니안주의가 유니테리언주의와 합쳐져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교회(UU)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점, 신념, 그리고 다른 많은 컬트적 신념을 비판하고 싶다면, Talbot Theological Seminary의 제 친구 Alan Gomes가 Zondervan에서 세계 종교와 컬트에 대한 14-15권을 편집했고, 전문가인 Alan 자신이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소시니안주의는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행해진 방식을 언급하면서 정의를 전혀 무시했습니다 .

우리가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이 정의를 없앨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만족에 대한 이 허구는 철저히 폭로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개혁된 진술에 대한 그의 비판적 거부에서 만족이라는 개념은 그의 평가에서 자비라는 개념을 배제합니다. 펠라기우스의 방식으로, 소키누스는 죄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시누스는 말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5:12-19에서 달리 생각합니다. 소키누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그의 정의를 제쳐두셨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대리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으셨고 그의 죽음에는 구원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하늘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지옥에서 속죄를 했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시니안주의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에서 속죄를 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하심이여, 은혜로우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재판적인 것이 아니라 징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생각보다 더 터무니없는 것은 없습니다.

소치누스의 견해의 전제는 신의 모든 것이 그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에게는 죄의 처벌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필연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소치누스를 인용하면, 신에게는 죄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처벌되어야 하고 신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그의 뜻에 따릅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뜻에 따라 처벌하거나 용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의 정의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용서를 가져오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할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그가 용서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조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구세주입니다. 소시누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속죄를 통해 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충분한 약속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그들의 죄가 지워지는 회개를 행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십니다. 소시누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에서 그의 천상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결국,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알리는 선포자이자 최고의 모범일 뿐입니다. 그는 탁월한 도덕 교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중에,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 첫 번째 직분에서 탁월한 선지자이시지만, 또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시누스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잘못된 견해, 즉 그의 신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속죄에 대한 결함 있는 견해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시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족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속죄를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깨우쳐 줄 새로운 신성한 생각뿐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단은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제 오류의 정도에 대한 차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견과 심지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립된 오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체계적 오류로 넘어갑니다. 개혁 신학 또는 칼빈주의로 알려진 신학 체계에 따르면, 우리의 아르미니우스 형제 자매들은 제가 그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유의하세요, 체계적 오류에 대한 유죄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로 알려진 신학 체계에 따르면, 그들의 칼빈주의 형제 자매들은 체계적 오류에 대해 유죄입니다. 즉, 그 두 사상 체계에서 교리는 다른 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 체계적 진실 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견, 오류, 체계적 오류, 그리고 큰 균열, 그리고 이단. 이단은 단순히 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이단은 저주받은 교리이기 때문이다 .

그것은 은혜와 구원에서 자신을 단절시키는 오류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를 속죄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신인 (God-man) 입니다 .
 소시누스 나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로서 뿐만 아니라 제 신에 대한 죄인으로서
 그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죄의 용서와 영생을 위해 그를 올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즉,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제 죄를
 용서하고 저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그의 신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은혜에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지구의 먼 곳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좋은 오래된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줄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그가
 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전에 존재했고, 성육신으로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었으며,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자 사람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신성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 또는 컬트의 저주받은
 오류입니다. 컬트에 속해 있으면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
 입니다. 컬트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을 믿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주목할 만한 다음 종교개혁 이후 역사 신학자는 후고 그로티우스입니다.
 그는 또한 그로티우스로 올바르게 발음되며, 여기서 우리는 속죄에 대한
 정부적 관점을 얻었거나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속죄에 대한 그로티안적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상기시켜 주세요.

그는 이단자가 아니고, 이단자가 아니지만, 그는 몇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티우스는 개혁 교리의 수호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루터와 칼빈은 모두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자들이고, 소시누스 의 견해, 잘못된 견해입니다 .

그는 그로티우스가 만족이 신이 자비를 공평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했다는 기본적인 개혁 주장을 지지하면서 시작한다. 그로티우스는 소키누스를 반박하려는 의도를 선언한다. 그러나 그로티우스는 소키누스와 마찬가지로 정의가 신의 본성에 내재된 필수성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인용문, 그것은 신이나 신의 뜻과 본성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신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충실하고, 진실하고, 전능하고, 전능합니다.

그는 정의롭고 거룩합니다. 신은 실제로 법을 선포했지만, 그는 여전히 법 위에 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이것은 소시누스에서처럼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조작이며, 법의 요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로티우스는 구원의 문제에서 신을 재판관이 아니라 통치자로 봅니다. 따라서 통치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로티우스에게 있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의 도덕적 통치에 가장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의 난해한 글을 읽는 것에 속을 정도로 성경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관계, 통치받는 자의 통치자로서의 신과의 관계는 내가 말했듯이 속죄에 대한 통치적 관점이라는 칭호를 낳았습니다. 신은 죄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로 그리스도를 처벌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통치자입니다.

그는 그것을 폐지하지 않지만, 자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칭찬할 만한 이유로 법을 변경합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법을 완화했습니다. 그는 그로티우스를 인용하여 모든 실정법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완화했습니다 .

이러한 완화된 법의 관계의 맥락에서 그로티우스는 형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형벌은 신의 정부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인용문에서, 형벌은 죄에 대해 가해지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 죄인 자신에게 가해지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로티우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느슨한 법의 필요성에 대한 만족의 희생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소키니우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형벌 교리를 비판한 것을 죄에 대한 신성한 형벌과 정확히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

그러나 법이 완화되거나 완화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반드시 위법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법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법에 대한 이러한 존중과 그것을 어긴 엄청난 죄책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

그로티우스는, 이것에는 불의한 것이 없다고 썼다. 모든 문제에서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신은, 그 자체로 불의하지 않은 모든 문제에서 가장 높은, 실례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은 어떠한 법에 종속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사용하여 우리 모두의 엄청난 죄에 대항하는 중대한 모범을 세우고자 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연, 주권, 안전에 의해 가장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정확한 형벌을 짊어지지 않았지만, 형벌을 대신하는 것을 인용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신이 인간을 위해 완화시킨 대로 신의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다.

이것은 형벌 대용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형벌 대용의 대용이다. . 예수는 대신 형벌의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을 만한 심판으로 아들을 벌하신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받을 만한 벌의 예로 아들을 벌하신 도덕적 통치자입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형벌 대속의 언어로 형벌 대속을 명백히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체계신학을 가르쳐 주신 분은 지난 몇 년 동안 성경장로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로버트 J. 던츠바일러 라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졸업한 젊은이가 안수를 받기 위해 장로회에 갔고, 신학 시험에서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속죄에 대한 그로티안 또는 정부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정부적 I에 점을 찍고 정부적 T에 획을 그었고, 위원회는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시험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속죄에 대한 결함 있는 관점을 제시했고, 젊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로버트 던츠바일러 . 오,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을 훈련시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바로 그의 노트에 있어. 내 머릿속에서 한 페이지 맨 위에 그려질 수 있어.

글쎄요, 젊은이여, 우리는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돌아와서 그 노트를 보여주세요. 그는 그렇게 했고, 그는 정확히 옳았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는 속죄에 대한 정부의 견해라고 쓰여 있었고, 이전 페이지 맨 아래에는 속죄에 대한 거짓된 견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가 여전히 속죄 교리의 역사를 추구하는 더 현대적인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듣고 지켜보는 성도 여러분, 끈기 있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또 다른 뛰어난 인물. 그의 연대는 1768년에서 1834년이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경우처럼, 그는 경건주의자로서 젊은 시절에 속죄에 대한 정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정통 신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칸트와 낭만주의에 대한 감상과 결합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구속자의 독특하고 배타적인 활동은 서로를 의미하며, 우리는 신자들의 자의식에서 분리할 수 없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종교에서 감정을 강조한다는 그의 개념에 대한 힌트이며, 실제로 신자들의 의식은 거의 성경의 정경 내에서 그의 정경이 됩니다.

쉐라이어마허는 이렇게 썼습니다. 구속자는 인간 본성의 동일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과 같지만, 그의 신의식의 끊임없는 힘으로 그들 모두와 구별되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신의 진정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쉐라이어마허의 열쇠, 신자들 안에 있는 신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쉐라이어마허는 대속과 속죄의 개념을 거부했고, 속죄에 대한 모범적 또는 도덕적 영향력의 관점을 견지했는데, 이는 대략 아벨라르를 따른 것입니다. 쉐라이어마허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용하자면, 절대적으로 자기 부인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이자 더 최근의 사람은 알브레히트 리츨(Albrecht Ritschl, RITSCHL, 1822-1889)입니다. 리츨은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역시 재능이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리츨은 쉐라이어마허보다 성경적 자료를 더 자세히 고려하지만, 결국 그는 아마도 안셀름보다 아벨라르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진 속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개념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속죄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은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성취하셨고, 우리 외부의 것들을 성취하셨으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죄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은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내면으로 움직이기 위해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은 도덕적 모범이나 도덕적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속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객관적인 이해로 우리 밖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구원받으려면 확실히 내적인 이해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주관적인 것으로 옮겨갑니다. 의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고, 주로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수립을 보지만, 주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의 사역을 통해 봅니다.

이 삼중적 소명은 그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리스도는 의식에 따라 대리적 처벌을 내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제로서 왕국의 공동체를 대표하고, 선지자이자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모범적인 사랑을 전달합니다. 저는 찬송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내가 경이로운 십자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찬송가를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찬송가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는 대체로 주관적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하세요.

영광의 왕자가 죽으신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살펴볼 때, 내가 가장 부유한 이득을 세는 것은 모든 자존심에 대한 손실과 가련한 경멸뿐이다. 그것이 좋은가?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나 밖에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해하시죠? 이것이 하는 일은 명상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명상입니다. 주님,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나를 가장 매료시키는 모든 헛된 것들을 나는 그의 피에 희생합니다.

그의 머리, 손, 발에서 슬픔과 사랑이 뒤섞여 흘러내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사랑과 슬픔이 만난 적이 있었나요? 가시가 그렇게 풍부한 왕관을 구성했나요? 자연의 그 전체 영역이 내 것이 었나요 ? 너무나 작은 선물이었나요? 너무나 놀랍고 신성한 사랑이 내 영혼, 내 삶, 내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찬송가이고 아름다운 찬송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 밖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지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찬송가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속죄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속죄에 대한 순전히 또는 주로 주관적인 견해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실제로 구세주가 아니라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예수를 모범으로 제시하지만, 마틴 루터는 잘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우리의 모범이라고 썼지만,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브 .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우리의 모범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그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살기 위해 그의 모범을 따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의 모범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구스타프 아울렌 , 저는 그와 그의 유명한 책인 *Christus Victor*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아울렌은 1879년 부터 1977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유명한 스웨덴 신학자는 고전 작품인 *Christus Victor*를 썼습니다.

고전이라는 단어가 떠돌지만, *Christus Victor*라는 책은 실제로 신학 고전입니다. 그는 이 책에 “속죄의 관념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유형에 대한 역사적 연구”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역사적 연구이므로 성경적 저작이 아니라 속죄의 관념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유형에 대한 역사적 신학 저작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악한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또는 속죄를 Aulen을 인용하여 신성한 갈등 과 승리로 간주하는 세 번째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객관적 또는 보수적 관점 대 주관적 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낡은 논쟁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Aulen은 이것을 신약과 교부들의 고전적이고 극적인 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옳은가요? 부분적으로는 그가 옳습니다.

Aulen은 특히 Irenaeus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죄를 파괴하고 , 죽음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Irenaeus는 이단에 반대합니다.

Aulen은 정의의 침해, 즉 형벌 대체가 주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용하자면, 인간을 속박하는 폭군을 극복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Aulen은 Origen, Athanasius, Cappadocians, Chrysostom, Ambrose, Augustine , Leo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부들에게 호소했고, 그는 또한 대속이나 사악한 권능을 언급한 모든 신약 성경 구절에 호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대속 말씀인 Mark 10.45, 고린도전서 2 :6, 골로새서 2:15. 그의 가장 논란이 되는 주장은 루터가 고전적 유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루터는 *Christus Victor*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이 책의 이름이 기독교 신학에서 전문 용어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속죄에 대한 Christus Victor 관점이라고 불리며, 그것은 옳고 그는 옳았습니다. 게다가 주관적인 관점을 가진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형벌 대체를 가진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루터의 유일한 관점으로 만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요. 어제 말했듯이, 폴 아웃하우스는 그의 인상적인 책인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에서 루터가 형벌 대속과 Christus Victor라는 두 가지 주요 견해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루터교 전통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Aulen은 칼빈을 완전히 무시했고, 칼빈에서 형벌 대속 견해가 우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칼빈은 Christus Victor를 가르쳤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배운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칼빈이 저에게 성경을 알려주었고, 나중에 속죄의 그림을 볼 때, Christus Victor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에 대한 첫 언급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ulen은 성경적 주제를 올바르게 되살렸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기쁩니다.

그는 그것을 잘못 과장하고 교부들, 루터, 그리고 성경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2:15가 Christus Victor의 속죄에 대한 관점을 가르친다고 올바르게 말합니다.

아들은 죽음을 통해 악마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살과 피를 취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고 그리스도인을 해방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히브리인의 속죄에 대한 주된 관점이 Christus Victor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주된 관점은 희생입니다. 희생에 대해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희생에 대한 구약의 배경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루터교적 유산과 구약의

편하로 인해 Aulen은 구약을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작품인가요? 오, 맞아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나요? 오, 맞아요. Christus Victor는 다양한 것에 중독된 신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긴 우리의 챔피언입니다.

그는 한 인격 안에 있는 신이자 사람으로, 그의 백성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복음과 기독교 생활에 대한 훌륭한 주제입니다. 나중에, 저는 형벌 대속을 강력히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 관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섯 가지 큰 그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나서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전도와 제자 양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Aulen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동시에 그 사람과 그의 좋은 일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1928년부터 2014년까지의 현대 신학자 울프하르트 판넨버그입니다. 저는 토니 시슬턴의 비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판넨버그는 그의 체계 신학의 두 번째 권에서 3개의 방대한 장 또는 거의 200페이지에 걸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올바르게 엮어냈습니다.

그는 출발점에서 인용문을 시작합니다. 오직 신 자신만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입니다. 갈라디아서 4:4, 로마서 8:3. 하지만 판넨베르크는 속죄에 대한 그의 취급을 그의 체계적 신학의 1권, 2권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이전 책인 예수, 신, 그리고 인간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제공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인용문에서 그것은 오직 우리,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대속적 본질은 마가복음 10:45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고린도후서 5:2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판넨베르크 는 그의 스승 바르트처럼 성경 해석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바쳤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예수 그리스도 를 새 사람이요, 종말론적 아담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그의 부활의 빛 속에서 온전히 보이고, 나는 그의 부활의 빛 속에서만 볼 수 있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였으며, 죄의 공격, 죄책감, 그리고 죄의 결과를 제거합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인용하자면, 무고한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대리적 형벌 고통,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적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와 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운명과 함께 받아들이신 교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 에는 좋은 점이 많지만 , 저는 최근 매우 유용한 체계적 신학을 저술한 복음주의 개혁 신학자 로버트 레섬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몰트만 과 판넨베르크 의 마음에 들어가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마도 확실히 독일인이고 아마도 전적으로 영향력 있는 두 신학자를 꼽았습니다 . 판넨베르크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요. 로버트 레섬은 판넨베르크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고백했을까?라고 주의를 줍니다. 답은 '예' 이고, 주류 신학자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모든 것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사실일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만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에밀 브루너의 좋은 가르침에 대한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그의 인식론은 왜곡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 판넨베르크 의 경우에도 사실이며, 몰트만 의 경우가 더 많지만 ,

판넨베르크 의 경우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이 많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속죄 교리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론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강조했듯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 과정이 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의 인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준비로서 그의 인격에 대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서론과 함께 작업 중입니다. 사실, 서론에 대한 마지막 요점은 그리스도 자체의 구원 사역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리스도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삼위일체, 그리고 중요한 두 상태 교리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전적인 신약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모두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그보다 더 고전적인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해, 그가 자신을 낮추어 죽음, 심지어 십자가 죽음,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그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세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변화되어 사람의 형상으로 발견되셨을 때에 그는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분의 오심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 목적은 그분의 사명, 십자가,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고전적인 구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화해 사역에 대해 읽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으니, 골로새서 1:20 ,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셨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의 믿는 자들아, 그는 이제 그의 육신으로 그의 죽음으로 화해시키셨으니, 이 구절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의 사역을 위한 요구 사항과 전제 조건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아들이고, 가장 높고,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며,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에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고전적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아들에 대해 말하고, 아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자연이라는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의 본성의 정확한 각인은 *hypostasis*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본성, 본질적 존재,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에 대해 그런 말을 한 후에, 그는 죄를 정화하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있는 위대한 속죄를 예견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정통적인 관점은 그의 속죄에 대한 정통적인 이해에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결과로서 그의 인격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불완전한 관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컬트 신도들이 문을 두드리거나 다른 선행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자기 구원주의 의 프로그램에 빠져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따라서 구원을 위해 오직 그에게만 자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에 기여해야 하므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평생을 바친 학문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체계신학은 장점이 많지만 약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체계신학에는 인위성이 있습니다.

오, 강점과 약점은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모든 진실과 그의 모든 구원 행위, 그리고 모든 성경적 그림을 함께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제 마음이 뒤죽박죽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격을 분리하고, 그의 선재, 성육신, 그의 신성, 그의 인간성, 그의 단일 인격성, 그의 두 상태 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의 사역, 그가 행한 일,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신 일, 죄 없는 삶을 사신 일, 우리 대신 죽으신 일, 다시 일어나신 일,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일, 그의 오른편에 앉으신 일, 성령을 부어주신 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일, 그리고 다시 오실 일을 연구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구원 사역이며, 그 모든 것이 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체계 신학은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을 올바르게 분리하여 각 부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위적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영구히 조립하신 것을 산산이 찢을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계학은 특히 우리가 적절한 신학적 방법을 따른다면, 즉, 주해로 시작하여 성경 신학으로 나아가고, 역사적 신학을 통합한 다음 체계학에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주해적으로, 그리고 시험적으로 도달한다면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성경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사고에서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다룬 사건과 그림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항상 그의 인물에 눈을 뜨고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절들은 둘 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 안셀름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그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좋은 일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생각하기 이상한 일입니다.

그 중심이 창시자의 죽음인 종교. 제가 이걸 바로잡겠습니다. 유대인의 십자가 처형이 여러분이 흥분하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부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체계 주의자인 저는 그것이 제 피 속에 흐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심이야. 뭐? 그건 승리가 아니야. 그건 패배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십자가에는 큰 신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20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면, 여러분은 그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깊이를 파헤치지 못할 것이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인(神人)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시대의 신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는지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수백만의 구약의 희생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세요. 모든 시간을 위한 한 번의 희생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두 번 이라는 걸 알지만 , 강조를 위해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말하는 방식은, 성육신의 신비가 십자가에 신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인간의 정체성을 나에게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나는 당신에게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우리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은 큰 신비입니다. 구유 속의 아기는 전능한 신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이고, 신의 태아입니다. 아기는 신의 유아, 신의 유아, 신의 어린 소년이고, 그 다음 아기는 내 우리를 흔들여 놓는 신의 십 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든 말든, 약 200년 전쯤에 십 대였어요, 제 손주들이 말해요. 아니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친 신인이예요.

성육신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큰 신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입니다. 둘 다 필수적입니다.

둘 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비가 나오는 곳, 신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신이자 사람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특정한 설명을 하고, 우리는 오류를 배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9가지 사건을 추적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그림, 6가지 큰 그림으로 작업하고 오류를 제거합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을 역사 신학 조사를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인트 오거스틴이 잘 말했듯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그런 다음 경배합니다. 제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이것이 이 종교의 진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떤 인간도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21살 때 저를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신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 구절인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 어쨌든, 그리스도론은 속죄 교리에 필수적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신비를 합치고 있습니다. 어머.

삼위일체와 성육신은 이 지점에서 키스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한 분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 항상 한 분의 신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두 번째 진술은 이 한 분의 하나님이 세 가지 존재 양식, 세 가지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신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진술은 이 세 가지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번째, 우리가 실제로 다루지 않을 것은, 글썄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통일성과 평등성으로 함께 다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점은 그들이 서로 상호 내주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한 우리의 심층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인격은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 만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그러므로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초기 교회의 거짓 가르침인 패트라파시즘 이었다 . 패트라파시즘 ,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가르친 아버지 .

아니요,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만이 성육신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들 만이 속죄하고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인격을 구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추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온다. 우리는 인격을 구별한다, 알았지? 예수의 세례 때, 예수는 물에서 올라왔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는, 신현, 비둘기의 형태로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에 보이는 현현이 있습니다. 세 인격, 한 분의 신.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 수행되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이 아버지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지적하겠습니다. 하지만 체계적 신학자로서, 저는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체계적 방법에 대한 나만의 이해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

제가 구절이 없다면, 좋아요, 첫째로, 저는 구절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알겠어요? 저에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신학은 주해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해를 넘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더 쉽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으로 신중하게 분류되어야 하며, 그렇게 간주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 자체의 말씀에 기반을 둔 가르침보다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만 성경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면, 성경은 아버지나 성령이 속죄에 관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오직 아들만 말해요 .

물론, 그것은 단지 아들이 죽었다고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들이 관련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인격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관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사역이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제로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이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 인물들을 혼동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를 십자가에 올려놓지 않는다.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아들 이다 .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일은 아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버지의 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18, 19.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죽으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반사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자로 불립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분의 화해 사역은 또한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삼위일체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이 인격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독특한 화해 사역은 또한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13, 14는 이 속죄 사역에 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은 결코 성육신하지 않았습니다.

영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13, 14. 염소와 황소의 피와 더럽혀진 사람에게 암소의 재를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아버지와 영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하겠느냐? 그들은 피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폭력적인 죽음이 어찌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물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겠느냐? 그리스도만이 제사장과 제사였으며,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 명의 위대한 주석가인 필립 에지컴 휴즈를 알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가리키는 작은 s 영을 번역할 것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에 대한 저의 가장 좋아하는 주석가인 윌리엄 레인과 거의 모든 사람이 대문자 S로 시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으셨지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여합니다. 제가 아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이것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인격들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고, 그래서 윌리엄 레인은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 희생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희생의 끝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희생보다 수백 년 전에 행해진 희생에 효능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인간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삼위일체의 일이 됩니다.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와서 논의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국가의 교리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서론, 파트 5, 교리와 그리스도론의 역사입니다.